



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 제38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종령 법공 대종사, “인연중에서도 훌륭한 스승과의 인연이 소중하다.”



총기 47년 9월 8일 총지중을 창종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38주기를 맞아 종조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 마련되었다. 불교총지중은 총본산인 서울역삼동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각 사원에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38주기를 맞아 멸도절 추선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총지사에서 열린 법회에는 총지중 종령 법공 대종사와 통리원장 인선 정사, 총지중 서울, 경인 교구 스승

과 교도 등이 참석해 종조 각령을 염원했다. 종조 원정 대성사의 육성 법문 시간을 통해 종조님의 법어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다. “부처님 법은 아낌없이 배풀어 주어야 하므로 법을 아끼지 말고

대중에게 회향하라.”는 생전 육성 법문을 들었다. 또한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대종사는 멸도절 법어를 통해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심신을 맑게 하고 진언염송에 충실해야 한다.”며 술을 아홉 번 바래 곁었다는 구정선사(九鼎禪師) 이야기를 하시며 훌륭한 스승과의 인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하여 법어를 내렸다. 종령 법공 대종사는 옛 분들은 한문으로 사람인 3개를 써놓고 3인연의 소중함을 설명하시며 “부처님 만나는 인연의 소중함과 부처님 말씀하신 법만나는 소중한 인연 그리고 그것을 전해 줄 참다운 스승을 만나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한 인연이 있다면 바로 훌륭한 스승 만나는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스승만이 부처님 법을 잘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정선사의 은사이신 노스님이 하루는 술

을 새로 걸어야겠다며 행자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정성스럽게 술을 건 행자가 “술을 다 걸었습니다.” 하자. 노스님은 “이 곳이 빠져서이니 새로 걸어야겠다” 하고는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조금도 틀어진 곳이 없다면 행자는 다시 술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걸고 허물기를 무려 아홉 번 하고 나서야 노스님으로부터 “바로 걸었다.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합니다. 그 행자는 술을 아홉 번 걸었다 하여 구정(九鼎)이라는 법명을 받고 이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원정 대성사님의 법을 만나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우리들은 행복한 겁니다. 참다운 스승을 만나 바른 법을 배운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현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습

니다. 부모 제사를 등한시하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내 경험으로 보아 지극 정성으로 부모 제사 잘 봉양하면 그만큼 복을 꼭 받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해 주시는 스승과 이 몸을 낳아주시신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며 인연의 소중함과 그중에서도 스승의 인연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을 남겼다. 이날 법회는 전국 사원에서 동시에 봉행 되었으며, 대구경북 교구 승직자와 교도들은 불교총지중 제석사에 모여 종조멸도절을 봉행하였다. 종조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1972년 12월 24일 불교총지중을 창종하고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힘쓰던 중 1980년 9월 8일 열반에 들었다.

제 2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 고베대회 개최

삼국의 실질적 불교교류 성취를 위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탁마해 가자

한중일 불교 대표자들은 2018년 9월 11일에서 9월 15일까지 일본 고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2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는 일본 고베시에 있는 입정교성회 고베교회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회에서 참석한 300여 명이 “현대의 활용 가능한 불교의 자비심-삼국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일중한국제불교교류회가 주관하였다. 불교총지중 한국 참가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각 교계 스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한중일 불교 교류위원회는 고

베시 오쿠라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열릴 제 22차 대회를 중국 주해시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한중일 불교 대표들은 2019년 3월 27일과 28일 중국 현지에서 본대회 일정과 주제와 관련한 예비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제21차 일본 고베 대회는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정토문주 총본산 치온인 문적)은 개회식 인사에서 “제21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가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 고베교회에서 개최됨에 있어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 존경하는 고승대덕, 신도, 내빈 여러분에게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은 오로지 여

러분의 깊은 우정의 발로라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범우가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며 환영 인사말을 하고 세계평화기원 일본총법요를 20분 정도 봉행했다. 한국불교 대표단장을 맡은 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우리 삼국의 불자들은 세계 일화(世界一花),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평화를 앞당기는 정신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아가 발달하는 과학문명과 물질주의 세계의 대안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소외, 노동의 소외를 극복 할 대안은 바로 부처님 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여 인연을 맺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석전에 빛나는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를 비추며 악업을 멸하고 선한 인연을 닦아 나가겠습니다.”며 세계평화기원문을 봉독했다. 이어 한국측 세계평화기원 법요식이 봉행되었다. 세계평화 기원법회와 함께 국제학술강연회가 “현대의 활용 가능한 불교의 자비심”이라는 주제로 삼국의 기초강연과 일반강연으로 각각 3명이 발표했다. 본 대회 기간중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23년 전인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고베 대지진 체험자인 후쿠이 치요코



(입정교성회 고베교회 신도)의 체험당 발표와 함께 대지진 상징곡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공연이 있었다. 고베대지진으로 약 6천 4백명이 희생되었고, 입정교성회 고베교회 신도 80여명이 희생되었다. 고베교회에서는 매년 1월 7일에 ‘한신 아와지(고베) 대지진 위령법요’를 올리고 있다. (12면 계속)

종/조/법/어 불에 공양하는 자는 큰 복덕을 얻게되고 법에 공양하는 자는 모든 지혜 증장한다

지/면/안/내 3면 2018 정각음악제 개최 6면 관성사 사원탐방 9면 통신원 소식 12면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화보



제92회 추계강공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총기 47년 10월 11일(목)~12일(금)
장소 : 불교총지중 통리원
대상 : 불교총지중 전국 사원 승직자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대표단에 원택스님 포함

이기흥 중앙신도회장도 방북대표단 동행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할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종교 분야 등 특별수행원 52명 등 200명의 방북대표단 명단이 확정되었다.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북한 평양에

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방북 대표단에 불교계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스님이 포함됐다.

입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공식 수행원을 포함한 정치경제 사회문화 노동 종교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방북 대표단 200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인 실장은 “국민통합과 남북 종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교 원택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천주교주교회의의 대주교,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을 특별수행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스님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진전 등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두 정상이 원활한 논의를 진행하면 불교 등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교류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기간 동안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등 북측 불교계 이외에도 다양한 북한 측 인사들과 논의하는 시간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 방북대표단에 남북 체육교류 차원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동행해 눈길을 끈다.

다양해지는 염불의 세계

제2회 학인염불시연대회 성료... 댄스·기타연주 등



2014년 첫 선을 보이며 불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가 9월 19일 두 번째로 열렸다. 4년 만에 열린 경연인 만큼 학인 스님들은 악기연주와 댄스 등을 접목한 다채로운 염불을 선보여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이 9월

19일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를 개최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은 500여 대중들로 가득했다. 전국에서 응원 온 각 사찰 학인 스님들과 신도들은 저마다 피켓과 응원도구를 들고 응원전을 펼쳤다.

올해 대회는 전통염불과 창작염불 2개 분야에서 개인부와 단체부로 나뉘어 총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예선에서는 15개 사찰에서 개인 25명, 단체 8개팀의 총 115명이 참가했으며 이를 통과한 개인 6명, 단체 4개팀이 본선에서 솜씨를 뽐냈다.

이날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스포

츠 댄스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접목한 법주사 승가대학 2학년 정륜 스님의 무대였다.

처음 보는 댄스와 염불의 만남에 대중들 사이에서 웃음도 터져 나왔지만 큰 박수와 함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대회에서 개인부분 대상을 수상한 정륜 스님은 “출가전 스포츠 댄스를 익혔다. 원래 스포츠 댄스는 커풀이 함께하는 것이지만 대중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맞췄다. 염불의 가락 속에는 고유의 흥이 있어 이를 스포츠 댄스와 접목해 전하고 싶었다”며 “이제는 수행에 전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기타 반주와 함께 경허선사 참선곡을 선보인 운문사 진정 스님 등 기타 연주팀이 출전했다.

‘행복자전거’ 100대 전달, 빗고을나눔나무 기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 열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단체인 빗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음)가 네팔의 초등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9월 8일 세심정사 잔디마당에서 ‘룸비니 저소득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자전

거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월인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어진 후원행

사는 연잎밭과 가을 꽃차로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서 모인된 기금은 네팔 룸비니에서 하루 2-4시간 도보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 100대 구입에 사용된다.

빗고을나눔나무는 ‘행복자전거’로 이름붙인 자전거 100대 상당, 현금 1천만 원을 지역의 불자들로부터 기부 받았다.

상임이사 보음스님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네팔 룸비니지역 초등학교 네 곳에 방문해 ‘행복자전거’ 100대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 상임이사 보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룸비니에서 많은 시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만났다. 대부분 저소득 가정으로 자전거를 집안의 큰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불광사 불교대학 교수들 호소문 발표

불광사 사태, “대중공사로 참회하고 용서하고 화합하자”

불광사를 둘러싼 내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광사 불교대학 교수들이 대중공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했다. 전 회주지흥스님과 본공스님, 광덕문도회, 불광법회장과 임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스스로 참회하고 서로 용서한 뒤 화합할 것을 호소했다.

불광사 불교대학 교수진을 맡고 있는 법준스님과 김진숙, 목경찬, 이미령, 임기영 교수는 14일 ‘부처님께 참회하며 불광사 불광법회 불광형제에게 글을 올립니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불광사 사태를 보며 교수들이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였는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괴감이 든다”고 운을 뗀 이들은 “그럼에도 서로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이 아직 함께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늦었지만 신심과 환희심으로 가득한 불광사 불광법회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고 호소문의 취지를 밝혔다.

교수들은 불광사 사태 해결을 위한 구성원들 간의 대중공사를 제안했다. 이들은 “절 집안에는 대중공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참회하고 용서하고 화합하여 일을 도모하는 제도”라며 “서로 강력한 입장을 내세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해결할 길은 없다고 본다. 전 회주스님과 광덕문도회, 불광법회장과 임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참회하고 용서하고 화합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스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는 하심을, 대중들에게는 유연함을 부탁했다.

신도들이 법당 참배를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 집안의 문은 원래 문짝이 없다. 모든 이들이 걸림 없이 법당을 참배할 수도도록 닫고 있는 불광사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한다. 열린 문으로 화합의 소식이 전해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수들은 “이번 일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삼보를 위한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두 똑같이 세 걸음씩만 물러서 보셨으면 한다. 첫 걸음은 부처님을 위하여, 두 번째 걸음은 가르침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걸음은 사부대중을 위해서다”라며 “하루 빨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으로 불광사 불광법회가 환희심이 가득한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키워드로 보는 울산 청동기 문화’ 특별전 개막

‘ㄱ’자형 돌칼, 검단리식 토기... 울산의 청동기 문화

울산대박물관은 9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키워드로 보는 울산 청동기 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시는 제 1부 청동기시대 울산과 제 2부 키워드로 보는 울산 청동기 문화, 제 3부 한반도의 후기 청동기 문화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 중 울산지역의 발굴성과는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울산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울산식 집자리와 검단리식 토기는 울산의 후기 청동기 문화를 잘 나타내는 핵심이다.

울산식 집자리는 배수구 시설에 특징이 있다. 네모꼴 집자리에 지형적으로 낮은 부분 쪽으로 배수구가 만들어져 있다. 배수구는 대부분 아무런 시설



없이 도랑을 판 형태이지만, 일부는 평평한 돌을 사용해 만든 경우도 있다.

검단리식 토기는 바리모양의 무문토기에 날알문이 새겨진 것이다.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유적에서 처음 발견돼 ‘검단리식 토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울산과 경주, 포항 등 동남해안지역 외에는 발견되지 않아 지역성이 매우

강하다.

특별전 외에도 박물관은 울산 청동기 문화의 이해와 확산을 위해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이란 주제의 학술회의도 개최한다. 학술회의는 오는 10월 12일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

통일신라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

울산시 유형문화재 지정... 보물 신청 검토

울산시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을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9월 13일에 지정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은 초층 탑신 중앙에 커다란 문비(門扉·문짝)를 두고 좌우에 수호신인 권법형 금강역사가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1984년 발굴 조사 당시 석탑의 기단부일부와 2층 탑

신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부재를 보강해 복원되긴 했지만 기단의 결구방식과 초층 탑신 금강역사의 조각 표현방식이 뛰어나 신라 석탑의 우수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울산시는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유형문화재로 지정·고시하며,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종교인 소득세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국세청, 홈택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올해는 종교인 과세 원년이다. 종교인들이 손쉽게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개발됐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9월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통된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은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

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금년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산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룡스님, “불교로 서양철학 논의를 보고자 연구”

‘존재, 생명 그리고 의지철학의 논리체계 연구’ 박사학위

천태종 자룡스님이 최근 금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서양철학의 논리 체계를 고찰하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존재, 생명 그리고 의지철학의 논리체계 연구’로, 특히 불교사상의 장점을 서양철학과의 객관

적 비교와 분석을 통해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국문초록에서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통합하고, 불교의 인연법과 서양의 논리학, 인과법, 그리고 변증법을 통합하는 새로운 논리학을 제시하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룡스님은 BBS NEWS와의 통화에서 “불교로 서양철학을 논의해 보자는 목표로 연구를 시작했고, 선행연구가 없는 분야이다 보니 참신하다는 호평과 범위의 광범위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 · 경북교구, 종조멸도절 제석사에서 봉행 종조님을 기리며 용맹정진 다짐



총기 47년 9월 8일, 대구 · 경북 교구 승직자와 교도들은 불교총지종 제석사에 모여 종조멸도절을 봉행하였다. 대구 · 경북교구 교구장 안성정사(수

인사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멸도절 행사를 다같이 모여서 올리게 된 것은 참으로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조님께서는 한국불교에 밀교라는 씨앗을 뿌리시고 밀교종흥의 새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좀 더 생존해 계시면서 더 많은 가르침과 밀교의 비법을 연구해서 세상에 내놓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큼니다. 이제 그 몫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며 종조님의 열반일을 기리며 더욱더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인교구, 인간방생비 지원 어려운 교도 가정과 사회복지재단에 기탁

서울경인교구는 지난 7월 15일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며 십시일반으로 모금된 인간방생비 2,332,000원을 어려운 교도 가정 돕기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 기탁하였다.

서울경인교구는 지난 8월 31일 서울경인 교구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실시사 교도와 총지사 교도에게 병원비 및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고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도 일부 기탁하여 의미있게 사용되기를 결의하고 9월에 집행하였다.

서울경인교구는 매년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에 인간방생비를 불공 동참자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교구회의에서 사용처를 결의하여 집행하고 있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제 2차 이사회 개최 저소득가정 지원사업과 2018년도 추경, 2019년도 예산 심의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는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가결하였다. 안건으로 상정된 저소득가정 및 기타

지원사업, 연장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저소득 가정지원 사업은 2018년 12월 까지 누적 지원금이 ₩46,100,000이다. 이사회는 2018년도 추경과 2019년도 예산을 심의, 가결하였다. 2019년도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독거 노인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필리핀 오지 학생 장학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안을 논의, 가결하였다.

사회복지재단,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원장 임명 어린이집 최유정 원장 임명과 재 위탁 운영 결정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정사)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서초구립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이 2018년 9월 30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심사를 통하여 위탁운영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위탁 심사는 지난 5년간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해 온 실적과 앞으로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최유정 원장의 발표와 그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서초구립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결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2018. 10.1.~2023.9.30.)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 신임 어린이집 최원장은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24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자다.

2018 제9회 전국불교 합창제 개최 불교총지종 마니 · 만다라합창단 참가하여 기량 뽐내

불교총지종 서울, 경인 마니합창단(단장 최영아)과 부산, 경남 만다라합창단(단장 이상록) 단원 일부는 2018년 9월 15일 15시, 서울 더케이아트홀에서 개최한 ‘2018 제9회 전국불교합창제’에 함께하여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합창제에 총지종 총무부장 우인정사와 재무부장 원당 정사, 서울경인 교구장 범경 정사는 참가한 총지종 합창단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즐거운 자리를 만들었다.

2018 제9회 전국불교합창제는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전국불교합창단 연합회에서 주최한다. 서울 경기남 상락현(김경숙)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비나눔,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주제로



로 열리는 합창제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전국불교합창제를 통하여 불교음악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고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을 접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일

니다. 전국불교합창제는 관객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통해 찬불가의 명곡과 애창곡이 탄생하기도 합니다.”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불교총지종, 2018 정각음악제 개최 “정각의 도량에서 울리는 바른 깨달음의 소리”



▲ 정각사 전경

불교총지종 정각사(주교 법상인)에서 2018 정각음악제를 개최한다. 정각음악제는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 불교총지종 정각사 서원당 3층에서 개최된다. 정각사는 부산 동래구 온천장역에 위치한 불교총지종 부산경남 교구에 속한다.

2018 정각음악제는 “정각의 도량에서 울리는 바른 깨달음의 소리”라는 주제로 지역 사회의 합창단 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 공연을 펼침으로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바른 실천, 바른 깨

달음이 2018 정각음악제의 아름다운 합창 소리와 함께 녹아나길 염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과 동래구 지역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선사하여 문화생활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되고자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음악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족들도 함께 ‘2018 정각음악제’를 즐기면 된다.

2018 정각음악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불교총지종 정각사 합창단의 합창과 불교계 합창단 합창 공연이 있다. 어울림 한마당 시간에는 문화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참여 사찰단위 부스를 설치하여 먹거리 장터, 체험 활동 등

의 마당이 만들어지며 풍물과 노래 등의 공연도 선보인다. 저녁공양, 떡과 차, 기념품 등을 제공하며 풍성한 불거리와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2018 정각음악제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정각사와 불교총지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2018 정각음악제’를 찾아 주실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요? 하는 질문에 정각사 합창단 이상록 단장은 “여러 행사가 많아 바쁘고 힘든 가운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하여 방문하여 주신 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많이들 정각사를 찾아주시어 즐거운 시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라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열의를 보였다.

불교총지종 2018 정각음악제를 통해 사회 계층간 소통과 통합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지역 사회의 화합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불교총지종 정각사 051) 552-7901로 하면 된다.

2018 정각음악제

정각의 도량에서 울리는 바른 깨달음의 소리

2018년 10월 26일(금) 오후 6시
불교총지종 정각사 서원당

불교총지종

참여 단체: 대광명사 소리장엄합창단 | 동명불원 가람소리합창단 |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 영주암 본래지합창단 | 정각사 만다라합창단

주관: 불교총지종 정각사 | 주최: 부산·경남 교구회 | 정각사: 부산시 동래구 시설로 19-9 (명륜동 8-8)

칼럼 지혜의 눈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끝없는 참회

보살님들 모두 다 힘들지 않은 일반 하면서 지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 다니는 나름의 노고가 있고, 장사를 하면 장사에서 오는 또 다른 고통이 있고, 주부로 지낸다면 집안일에서 오는 그만의 힘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하든 늘 불평불만 투성이였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이나 주변의 친한 사람을 불독고, '그만두어야겠다', '더 이상 못해먹겠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있던 저의 주변인들도 저 못지않게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므로, 저는 그 힘든 일을 곧장 그만두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만두지도 못하면서, 그만둘 용기도 없으면서 주구장창 불평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행여나 그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며 불선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 놓은 두터운 업들을 모두 참회할 생각을 하면 앞이 아득해지곤 했습니다. 특히나 남편과 자식이나의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할 때면 그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여겨서 더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어떤 일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가령 질병을 얻었다고 해도, 그 질병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다만,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즉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때로는 그런 대로 견딜만한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 그리고 물질의 세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속 화를 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 살 맛이 나지 않는다, 운이 없다, 박복하다, 이런 식으로 신경질을 내고 하소연을 하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세계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그들에게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관할이 아닌 세계를 넘어다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흥을 보고 업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이 성장하고 닳았을 때, 자식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역시 따지고 보면 타인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주고 안 주고,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 아이의 뜻이지 부모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형제간의 사이도, 부부간의 사이도 모두 타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상황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파악하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고 애먼 남의 탓을 하며 업을 짓고, 그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보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덕을 짓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전환하면 모든 일을 복 짓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여나 상대가 불쾌한 언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 감사하구나, 나도 저런 허물이 있으면 버려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일본에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습니다. 산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중 마을에서 49세 불공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절에서는 스님들끼리 마을의 49세에 누구를 보내야 할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이 어린 스님이 낙점되었습니다. 어린 스님이 마을에 내려가서 그 집에 가보니 미망인이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습니다. 염불을 하는데, 그 염불을 코로 하는지 입으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자꾸만 미망인의 그 콧물에게로 신경이 쏠렸습니다. 미망인이 콧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밥을 하는 통에 밥솥으로 콧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염불이 끝난 다음에 내가 저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지?'

어린 스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망인의 어린 자식 하나가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어찌나 지독하게 우는지 울면서 오줌을 듬뿍 싸서 방의 반이나 오줌바다가 되었습니다. 미망인은 아이를 달랠며 명목으로 주걱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라며 툭 던져주었습니다. 기다란 주걱은 오줌바다 위에 찰떡같이 하고 떨어졌습니다.

'실마 저 오줌 범벅인 주걱으로 밥을 푸거나 하진 않겠지?'

스님은 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침 미망

인이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시장하시죠?"

그러고는 아이의 오줌 바다에 빠져있던 주걱을 들고 가서 씻지도 않고는 밥솥의 밥을 휘휘 저으면서 식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스님은 배탈이 났다는 등, 몸이 안 좋다는 등 어찌 저찌 겨우 핑계를 대어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나 다시 염불을 위해 미망인의 집을 찾았을 때는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감기가 말끔히 나았는지, 미망인은 콧물도 흘리지 않았고 전에 그토록 울어 제끼던 아이도 방긋방긋 웃으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아 오늘은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갈 수 있겠구나.'

어린 스님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신나게 염불을 하였습니다. 염불이 끝날 무렵 미망인이 스님을 불렀습니다.

"저~, 스님 목이 마르시죠?"

스님은 미망인이 건네는 단술을 별척 별척 마셨습니다.

"한 그릇 더 드릴까요?"

미망인이 다시 건넨 단술 한 그릇을 마저 마셨습니다. 그런 스님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망인이 말했습니다.

"지나번에 스님이 식사를 안 하고 가셔가지고, 그 남은 밥으로 식혜를 만들어 보았어요."

큰 스님이 된 다음, 이 스님은 법단에 올라가 설법을 할 때마다 제자와 신자들에게 당시의 일화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인연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노력을 거듭해서 피한다고 한들, 그 인연은 길모퉁이에서라도 또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인연을 만났다 싶으면 그 즉시 해결을 보고, 끝장을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경험해야 할 때에는 경험을 해보고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인연이라든가 사건, 사고는 항상 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일이 다가오면 환영을 잘 하고, 일을 끝낼 때에는 복을 짓는 방식으로 끝내며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나의 바깥에 신경을 팔리기도하는, 언제나 나의 내면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저녁 정송을 할 시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혹시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돌아켜보며 부처님께 참회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보살님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불공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사이에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대립 구도로 삼지 않아야”

“지혜 밝히는 일은 안락한 세상 만들어 가는 첫걸음”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어느 강연에서 발표자는 각 개인이 마스크를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더 취약한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생명이 걸린 문제를 개인 차원의 대책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우리 각자가 고통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사회나 국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상호의존 하는 세상 이치와 달리 우리 인간이 소통을 잘하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자괴감도 느껴진다.

대승보살도의 핵심 모토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다. 바른 식견을 가지고 모두를 구원하자는 큰 이상이다. 전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한다면 이뤄지지 못할 건 없겠지만 개인마다 집단마다 식견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어 녹록치 않다.

원자력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위 발표자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가야 할 길은 있지만 쉽사리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감안할 때 에너지원으로 현재로서는 원자력이 가장 깨끗한데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누군가 공동체를 위한답시고 나서지만 전체를 보는 안목이 부족할 때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그래서 때로는 소아적인 생각에 유혹을 받아 자기자신부터 지혜를 기르고 힘을 키워보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칫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개인주의나 독선의 길로 빠지기 십상이다.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지대에 머물기도 한다. 자기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지 못하고 남의 의견도 쉽사리 부정하거나 동조하지 못하는 회의주의자가 된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는 점에서 자체 모순을 가진 철학이지만 이를 눈치 채지 못한 채 주위와 거리를 둔다.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단정을 내리기보다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런 회의는 탐구의 정신과 통할 때 제 힘을 발휘한다. 1000번을 실패해도 실패에서 배우는 자세로 그 원인을 궁구한다면 마침내 1001번째 실행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지혜를 밝혀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작은 지혜들이 쌓이면 큰 지혜를 이루기 때문이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신구의 삼업(三業)을 청정하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지혜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캄캄한 밤에는 등불을 밝혀야 하듯 밝은 안목이 필수적이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문제로 돌아가면, 사회 구원을 위해서는 개인 구원이 필요하고 개인 구원을 위해서는 사회 구원이 요청된다. 닭과 계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각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가시로 뒤덮인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가시를 제거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가 가축신을 신는 일이다. 잘 보면 이 둘은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 꼭 순서가 있지도 않다. 가축신을 신고 활동에 장애가 줄어들수록 가시를 뽑아내는 일도 더 적극 할 수 있으니 상보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무명(無明)을 극복해 나갈수록 세상은 안락해질 것이며, 그럴수록 자기 한계를 넘어 무아(無我)를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 모두 마스크도 쓰고 청정기도 돌리면서 한편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청정한 에너지도 개발해나감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세상의 안락에도 기여하는 발걸음들을 디터 나아갔으면 한다.

김봉래(불교방송 선임기자)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법경 지음

六字儀軌

총기중앙연구원서신과수행법도를 펴내고 있다. 총기중앙에서 펴내는 입문 수행법의 화두인 '육자의귀염송'이라고 한다. 이 육자의귀염송은 총기중앙의 총기중앙연구원서신과수행법도를 펴내고 있다. 그러나 매일 행하는 육자의귀염송은 입문자의 수행법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중앙연구원서신과수행법도를 펴내는 총기중앙연구원서신과수행법도를 펴내고 그 의미를 총기중앙연구원서신과수행법도를 펴내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 밀교연구소장 /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 로 삼을 수 있는 총기중앙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 와 함께
 총기중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18

다라니를 수지한 관자재보살

『대승장엄보왕경』에서 관자재보살은 ‘선남자여, 저 관자재보살다라니를 수지한 관자재보살이 있는데’라고 하여 관자재보살은 육자대명다라니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대승장엄보왕경』은 육자대명다라니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부처님이 제계장보살의 육자대명다라니를 얻은 인연을 묻는 질문에 의해서 부처님 자신이 과거세에 육자대명다라니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다니시던 인연과 그 공덕을 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육자대명다라니를 구하기 위하여 보살여래에게 갔으나 얻지를 못하고 다시 연화상여래 처소에 가서 육자대명다라니를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자 연화상여래께서는 육자대명다라니의 무량한 공덕을 설하시고, 관자재보살이 이러한 공덕의 육자대명다라니에 잘 머물러 있다고 설한다. 다시 연화상여래는 무량수여래께 이 다라니를 구하자, 무량수여래께서는 연화상여래에게 육자대명다라니를 줄 것을 관자재보살에게 요청한다. 이때에 관자재보살은 부처님께 만다라를 보지 못한 자는 이 법을 얻지 못한다며 작단법을 설하고 나서 연화상여래에게 옴니반베 흙의 육자대명다라니를 설한다. 연화상여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관자재보살은 이것을 다시 무량수여래에게 올리니 무량수여래는 도로 연화상여래에게 바치었다. 그리하여 연화상

여래께서는 이 육자대명다라니를 받고 나서 도로 연화세계로 돌아갔다. 그때 부처님께서 연화상여래 처소에서 육자대명다라니를 들었음을 밝힌다.

이처럼 관자재보살이 육자대명다라니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관음보살과 다라니가 결합하여 관음신앙의 밀교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자재보살이 다라니를 수지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려는 구제력을 지닌 대비심의 보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누구나 쉽게 관자재보살의 다라니를 지송함으로써 고난과 역난에서 해탈하고 무상보리를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관음보살의 위신력을 빌어 고난과 역난에서 해탈하려면 관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칭명하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관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칭명하는 대신에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옴 마니 반베 흙(Om mani padme hum)’의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공덕으로 관음보살의 위신력과 구제력에 힘입어 현실적인 고난과 역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현세적 구원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그리고 육도 윤회의 세계 특히 지옥 아귀 축생

의 삼악도에서 벗어나는 천도의 이익과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는 내세구제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또한 다라니가 지니는 공덕의 힘으로 삼마지(Samadhi)를 이루어서 반야지혜를 증득하여 무상정등정각의 출세간적 공덕까지도 성취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관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는 대신에 관음보살의 육자대명다라니를 지송하므로써 얻는 이익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밀교에서의 관음신앙의 성취의 방편은 다라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음보살과 다라니는 한 몸으로 둘이 아닌 것이다. 이를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선남자여, 이 육자대명다라니는 곧 관자재보살다라니의 미묘본심이니, 만약 이 미묘본심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곧 해탈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여 육자대명다라니는 관자재보살의 본마음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육자대명다라니가 곧 관자재보살이며, 관자재보살이 곧 육자대명다라니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대승장엄보왕경』이 관자재보살과 다라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밀교의 관음신앙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존심의 사회 심리학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그림출처=자존심 원은희작 출처 daum.net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외출을 준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핀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추어질 때 비로소 집을 나선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어도 되겠다는 속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혹은 있게 될 사람과의 대면이나 중요한 결과를 얻어야 할 경우라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들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좋게 치장한다.

이러한 행동 양상은 자기연출의 한 예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며, 또한 타인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기연출 행위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은 거의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자존심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자존심이란 스스로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즉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말한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요구를 거부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피해를 준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보아 왔다.

반대로 자존심이 너무 약하면 자기희생을 방자해 자기관리에 실패하고, 위기가 있을 때 돌파할 생각보다 회피할 생각

부더 하여 결정을 의면만 하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높게 된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헷(Heinz Kohut, 1923-1981)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어머니가 거울처럼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감정, 즉 긍정적인 자존심이 형성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스스로를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하게 씻겨주는 등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보호해 줌으로써 부모를 위대하고 이상적인 인물로 여겨 아이는 남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감성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가 특정한 발달시기에 잘못된 양육으로 이러한 감성을 아이가 갖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인 성장은 멈추고 집착이 강해진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만족을 얻고,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는 부모를 보면서 나도 부모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적절하게 균형을 잡게 되면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자신만 사랑하는 이, 즉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만이 잘나고 자기만 대단할 것이라 생각해 결국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안하무인(眼下無人) 격의 인간이 되고 만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즉 자존심이 매우 낮은 사람은 세상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가득할 뿐 자신이 관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므로 항상 자신 감 없이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 버릴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있지만 그중 자존심은 손가락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자기가 관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심정은 언제나 자기 속에 머물고 있다. 사람이란 한 순간이라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엄청난 고통을 맛보는 존재다. 자신에 대한 아주 작은 타인의 지적에도 마음에 상처받고 미간은 찌푸러지기 일쑤이며 사소한 패배감에도 며칠씩 잠 못 이룬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로 방어벽을 만들기 있기 때문이다.



법상 정사
연명의료 9

경장에서 바라본 연명의료결정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연명의료결정, 이러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사건들이 초기 경장에도 등장하고 있다.

『雜阿舍經』(대정장 2권, 346b-346c) 『박갈리의 경(Vakkalisutta)』에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세존과 박갈리여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요약 하면, 박갈리 라는 비구가 중병에 걸려 도공의 집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박갈리 비구가 머물고 있는 도공의 집으로 방문한 붓다에게 말하기를 계를 받은 뒤에 계율을 잘 지켜 실천하고 수행하는데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즉 오온이 무상하고 스스로 욱되게 한 것이 없음을 괴롭고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을 확신 후, 박갈리 비구는 수행하는 승들로 하여금 산 중턱의 위치하고 있는 검은 바위가 있는 곳으로 중병에 걸린 자신을 이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중병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또한 해탈이라고 부르고 있고, 붓다는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박갈리 비구에게 허락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고디카(Godhika)비구

의 경우이다. 고디카 비구는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에서 머물면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일시적으로 심해탈(心解脫)을 얻었지만, 곧 잃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섯 번이나 해탈을 일시적으로 심해탈을 얻었으나 상실되고 말았다. 칠공번째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 독려하여 일시적인 심해탈을 얻게 되자 마음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여섯 번이나 일시적으로 심해탈을 하였으나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해탈 할 수 없으니 죽으리라’ 라고 생각 후 고디카 비구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 붓다는 제자들을 데리고 고디카 비구가 행한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갔다. 그곳에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검은 연기가 동서남북상하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도록 하였다.

고디카 비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섯번씩이나 심해탈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일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경전은 밝히고 있다. 주석서에는 해탈심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붓다는 고디카 비구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 또한 완전한 열반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다. 생사윤회를 벗어난 완전한

해탈한 사람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죽음은 곧 완전한 열반의 성취로 결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고디카의 경우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붓다의 가르침의 생사윤회를 벗어난 완전한 열반에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죽음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따라 죽음에 대해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통에 심한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노력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붓다는 팔정도에서 설하고 있다. 올바른 불 줄 알아야 하고(正見). 그렇게 해야 올바로 생각할 수 있으며(正思).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올바른 언어(正言)와 행위(正行, 正業)를 함으로써 올바른 생활(正命)을 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올바른 노력(正精進)과 올바른 마음가짐(正念) 그리고 올바른 정진(正定)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팔정도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 완전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팔정도의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자기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때 그 시절

교도 결연관정 수계 실시 총기10년(1981) 10월20일

본산 총지회관에서 삼매야계단을 개단하고 전국에서 온 562명의 결연관정수계 대상자에게 삼매야계를 수계하고 결연관정했다.

민족뿌리찾기 대행진 총기11년(1982) 10월23일

부산에서 출발하여 임진강까지 민족뿌리찾기 대행진 운동에 정각사 근무중인 정종순 인사가 참가하였기에 본종 서울시내 승단일동도 동참 합류했다



▲ 관음사 사진제공=재단사무국

사원명: 관음사(觀音寺)

- 개설일자: 총기3년 7월 25일
- 사원 개명일자: 총기9년(1980) 11월 12일
- 예전사원명: 서면선교부(西面宣敎部) 흥포서원당(弘布誓願堂)

전국 합창단 경연대회 총기16년(1987) 10월23일

교화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음악을 통한 교화방편으로 전국 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하다.

장소 : 총지사 서원당
참가단수 : 12개 합창단
참가단원수 : 총 230명
심사 : 작곡가 서창익 외 1인

범자진언

Na字

범자 쓰는 순서

경전예문(신묘장구대다라니)

나 南 呼 呼 呼 呼

따스마이 나마하(범음) tasmai namah 다사명 나막(한자음)

● 뜻 : 그에게 귀의하다. (다사명 - 그에게, 나막 - 귀의하다.)



사/원/탐/방

온 가족이 함께 다니고 싶어요, 관성사



▲ 사진 = 1. 관성사 2. 관성사 특rak전 3. 훈향하는 주교 인선 정사

사대문 안에 자리잡은, 관성사(觀星寺)

관성사

서울 독립문에 위치한 관성사는 불 관(觀)에 별성(星)자를 사용한다. 단순히 직역하자면 별을 보는 사원 정도겠지만, 조금 더 의역해서 의미를 유추해보면 별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희망, 소원, 진리, 빛 등 긍정적인 것을 은유하기도 한다. 또한 불 관자는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관성사는 서원하는 모든 것들을 나타나게 해주는 사원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다.



▲ 관성사 약도

관성사는 서울 사대문 내에 자리 잡은 총지종 유일의 사찰로 지상 5층 지하 2층의 건물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모양새로 접근성이 좋다. 또한 5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의 천장에는

아름다운 하늘이 영상이 보이고, 5층 승강기에서 내리면 곧바로 관세음보살이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한다.

다른 사원과는 달리 관성사 서원당에는 의자와 책상이 있다. 몸이 불편한 보살들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조금 더 편하게 정진할 수 있다.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정진하는 모습과 동시에 의자에 앉아 염주를 돌리는 모습은 좀처럼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라 신기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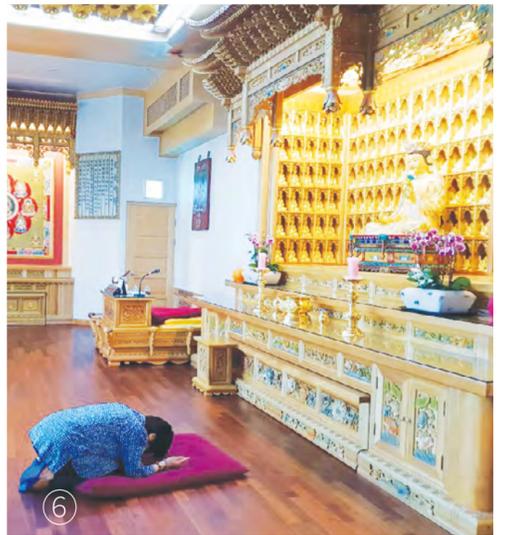
관성사의 과거와 오늘

관성사는 총기 1년(1972) 9월 13일 서울 종로구 행촌동 210-655번지에 심인각 보살의 무상보시로, 총정로도량으로 개설되어 복지와 전수계서

역임하였다. 그리고 총기 2년 3월 26일 서대문구 송월동으로 이전하여 서대문구 선교부로 개명, 총기 4년 10월 29일 육합서원당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총기 6년 12월 18일 경관 정사와 대도행 전수계서 이곳으로 발령 받아 포교활동에 박차를 가하였고, 총기 9년 8월 13일 현재의 관성사로 명명하였다. 또한 총기 34년 10월 17일 행촌동 26-17번지로 이전, 대지면적 138평, 건축면적 170평으로 신축하여 당시 주교였던 해정 정사와 정법계 전수계서 현공불사를 봉행하였다.

초대 주교로 복지와 전수계서 역임하였으며, 경관 정사, 대도행 전수, 해정 정사, 정법계 전수를 거쳐 현재는 인선 정사와 정계월 전수가 관성사 주교로 있다.

관성사는 총기 36년(2007) 종로구 행촌동 일대



▲ 사진 = 4. 관성사 자성일 법회 5. 자성일 법회를 마치며 6. 특rak전에 절하는 교도

화합과 단결,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교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종로구 행촌동 5-33의 24 필지를 대도 받아, 총기 45년(2016) 8월부터 46년(2017) 10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관성사는 대지면적 212평, 건축면적 652평의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신축하였다. 1,2,3 층은 교역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로 4 층은 공양처와 주교 사택, 5층은 서원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관성사

관성사는 총지종 사원 중 유일하게 사대문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사대문이라 하면 조선시대 도성(都城)인 서울 성곽의 4개의 큰 성문을 일컫는데, 정동(正東)의 흥인문(興仁門, 흥대문), 정서의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정남의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정북의 숙정문(肅淸門)을 전체적으로 이른다. 사대문 내에 자리를 잡은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위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총지종의 포교에 앞장 설 전초기지로서 삼기에도 아주 알맞다.

관성사 사람들

관성사 신정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순화 보살은 총무를 15년 동안 맡다가 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홍순화 회장은 친언니에게 제도되어 총지종에 입교하게 되었는데, 종단에 입교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있다는 질문에 "제가 입교했을 당시 경관 정사님께서 주교로 계셨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스승님이지만 동시에 부모님 같은 존재였어요. 요즘도 너무 기쁠 때나 혹은 슬플 때 종종 정사님 생각이 납니다."라고 대답했다.

신정회 활동에 대해 묻자 "3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집니다. 본원 신정회 지회 회장님과 각 사원 회장님들이 모여서 종단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자리는 아니고, 종단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가리지 않고 말한다는 겁니다. 모여서 잠시 기분 좋다고 좋은 이야기만 해서선 아무런 발전이 없을 테니까요. 모두들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이야기를 정사님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활동과 의견들이 종단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라며 웃음을 지었다.

"제가 회장 직함만 달고 있지, 다른 보살님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권위적으로 굴까 봐 스스로 늘 경계하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보살님들 덕에 그럴 일도 없지 않아요. 교도 분들이 대부분 오래 다니신 분들이고, 또 점잖으세요. 특히나 노보살님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로 인해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의지도 많이 하고요.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스승님들께서 너무도 부지런하시고 좋은 분들입니다. 교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절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교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홍순화 회장은 "잠 철었을 때 입교했지만, 다니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저 별 탈 없이 무난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늘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주교 인선 정사는 "월초에는 확실히 가족단위로 많이 나오십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정진 후 공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늘 중요시 여기는 화합과 단결에서도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보살님 한 분 한 분 모두 개성이 넘치시고요. 그게 참 어려운 건데 말입니다. 실제로 보살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배움에 열정적이십니다. 배움에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듯 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저 또한 배웁니다."라며 관성사 교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가족제도를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도분들이 3대가 함께 오시는 것을 꿈꿉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3대가 함께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 연대에 맞는 자녀들의 모임을 만들어 볼까 고민 중입니다. 함께 법회에 동참하기 좋은 절을 만드는 것이 저의 희망이며 서원입니다. 더 많은 총지종 교도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사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합니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취재-박설라

주교 : 인선 정사
주소 : (031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전화 : 02-736-0950

지상 설법

인욕하는 삶을 살 때 스스로가 편안하게 살아



주교 인선 정사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 다 른 말로는 감인(懺忍),화잡(會雜)의 세 상이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살아야하는 세상, 잡다한 인연이 모여 사는 세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욕 하는 삶을 살아 갈 때 스스로 가 편안하게 되며 타인에게도 편안함 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줄도 모 르는 법입니다. 어떤 감정든 자신에 게 선행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하기 힘든 것입니다. 화 를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 인에게 화를 내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 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이 생기 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칼날을 타인에게 휘두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에게 휘둘러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미국서부의 한 청년이 카드놀이로 하다가 심하게 다투던 끝에 그만 이성을 잃고 권총으로 상대방을 쏘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교수형의 판결 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평소엔 착 하고 성실하였으므로 마을에서 평판 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여 청년을 사랑하는 친척들과 동 네 주민들이 청년을 위해 진정서에 서 명을하고 주지사에게 전달하게 되었 습니다. 진정서를 읽어본 주지사는 그 청년을 사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성경과 사면장을 챙겨 주머 니에 넣고 청년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 로 향했습니다. 청년은 면회실로 들어 온 주지사를 보며 화가난 표정을 짓더 니 “저는 목사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

습니다. 가세요.”라며 주지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 습니다. 당황한 주지사가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라며 말을 꺼내려 하자 청년은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 습니다. 교도관은 청년을 보며 “왜 주 지사의 면담을 거절하느냐”고 묻자 청년은 너무도 놀라 면회실로 돌아갔 지만 이미 주지사는 자리를 떠난 후였 습니다. 청년은 그 이후로도 주지사 에 몇 번이고 사과의 편지를 적었지만 주지사는 청년의 편지를 받지 않았습 니다. 결국 청년은 사형을 당하게 되 었는데 청년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사람을 죽 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간의 화를,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 하여 죽습니 다.”

우리가 성이 나면 말이 거칠게 나옴 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고,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 하면 결국은 더 큰 화가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법입 니다. 살아가면서 성을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열 번 화 을 냈다면 다음날은 아 홉번,그다음날은 여덟 번으로 조금씩 회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 도 삶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를 내는 것은 습관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행자답게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온화 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닦아 정화시키며, 말과 행동을 신중하 게 해야 합니다. 성을 내지 않는 사람

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다고합 니다. 성내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 우 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서른넷에 승직자가 되었습니 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비를 넘 겠고,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욕 없이 이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오직 무난하며 별 탈 없이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 니다. 모두들 자신만의 속제가 있고 고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남모르 는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그 속제와 고뇌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이나 인내 없이 이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수행자의 길

을 걷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요즘 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고행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인욕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참고 이겨내느냐 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내 자식 잘 되 게 하고, 성공 시키고 싶다면 인욕 하 며 정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방 법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나이가 들 은 노년에 가족이 다 모였을 적에 옛 날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추억하 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 니다. 총지종 교도 모든 분들이 먼 훗 날 오늘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합니다.



박길화 교도

아침·저녁 인사가 ‘옴마니반메훔’

저는 원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또 한 제 할아버지계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 다녀본 종교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믿음이나 구원을 바라며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도 제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녀보아도 어딘 가 스스로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지종에 입교하게 되었 습니다. 그때 남편과 너무도 사이가 좋 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갖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하였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 했습니다. 결국 이혼 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앞집 에 사는 동생이 제게 총지종 입교를 권 유하였던 거죠. ‘딱 일주일만 다녀보자’고 스스로 마

음을 먹었습니다. 그 일주일일이 결국 40 년 가까이 저를 부처님 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있다는 말 을 참 많이들 하는데, 종교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 어, 정말 부처님과 저는 잘 맞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게 일단 남편과의 관계 가 개선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마법이 일어난 것 같습니 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구원을 바 라며 온갖 종교를 찾았던 제게 드디어 알맞은 해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부처 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와 닿았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이루지 못한 서원이 없습니다. 아들이 시험공부를 할 때, 스승님을 믿고 하루에 3시간씩 정진을 하 라하여 오직 믿음으로 정진하였고, 정 진에 맞춰 회사를 하고 오직 스승님께

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종종 시간이 맞지 않거나, 여유가 생기 지 않아 정진을 못 할 것 같은 상황이 생 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전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 다. 시간이 맞지 않다면 잠을 줄이고, 이른 새벽에라도 나와 어떻게든 3시간을 채웠고, 아주 짧 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 다.

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 여유를 부 릵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보란 듯이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딸아이가 돌이 있는데, 결혼을 하지 못 하여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결 혼을 서원하며 불공에 임하자 아들이 8개월 간격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 니다.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주위에선 그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시대 사라, 결혼 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촉박한 시간안에 아 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 지 않았습니 다. 오래 공덕을 쌓아 좋은 짝을 만나길 바랬을 뿐인데 부처님께 서 너무도 빨리 제 서원을 들어주셨습 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 산소를 다녀온 이 후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 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이 속이 안 좋거 나,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 는 등 딱히 병원을 찾기에 애매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정도의 고 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꽤 오래 지속되었는데도,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였는 데 불현 듯 이 일을 스승님께 말씀드려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과 이야기 나누고 보니, 부모님 불공을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에 스스 로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친정 부모님을 위한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친정어머니 산소에 다녀와도 몸이 아 픈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스승님과 부 처님에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게 남은 가장 큰 서원은 가족제도 입니다.

현재도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할 때면 모두가 ‘옴마니반메훔’하며 자리에 앉습 니다. 진언을 인사와 같이 사용하는 것 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옴마니반

메훔’하며 인사를 합니다. 진언으로 하 루를 연결하면 마음이 벽차오르는 하루 가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월초 기간임 을 공지하면 다들 ‘옴마니반메훔’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진언을 외는 것 으로 제도가 시작되어 모두가 총지종 에 입교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 같습니다.

더 많은 공덕을 쌓기 위하여 자발적 으로 서원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 처님께서 부디 저와 제 가족에게 많은 자비와 가피를 베푸시어 온 가족이 관 성사를 찾을 날이 오길 고대하고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리라이팅=박설라



박준희 교도

차별회사를 행하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하다

총지종에 입교한 지 25년에 접어드 네요. 전에는 현교 절에 다니다가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총지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어디에서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또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도 다 른 사람들 보다 평정심을 잘 유지했습 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의 편안함이 참 부럽다고 생각하던 차였 습니다. 절에 계속 다닐 거면, 자신의 절에 한번 같이 가보자는 말에 별 생각 없이 어머니를 따라 총지종에 가보았 습니다.

불상이 없는 서원당도 인상적이었지 만 가장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한 것 은 불공을 드리고 있는 보살님과 전수 님, 정사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다들 편안하고 평온해보였습니다. 여기 에 다니면, 나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총지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이 고3 수험생이 되었을 때 봉정암 에 갔습니다. 봉정암에 가면 부처님 가 피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아들의 안 녕과 딸의 수능 원만을 바라며 촛불 두 개를 켜셨습니다. 아들의 촛불은 نرم하 게 잘 타는데, 딸아이의 촛불은 좌우로 휘청거리더니 금세 꺼지고 말았습니 다. 꺼진 초를 보고 있으니, 내가 너무 아이에게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비 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지금 점수대에 맞는 적정 지원보다 조금 낮춰서 대학을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물어보았습 니다. 다른 부모들은 기왕이면 좋은 대 학을 권유하는 판국에, 저 혼자 눈을 낮춰서 지원하라는 말을 듣고 행여나 마 음 상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 니다. 다행히도 딸아이는 안 그래도 그 렇게 생각이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안전한 수위로

자원을 했음에도 예비번호가 나왔고,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정해서 하 루도 빠짐없이 정진 불공을 하고 차별 회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비 우는데 힘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 도가 지나니 예비번호가 빠져서 아이 가 원하는 학교에 무사히 합격 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딸은 의상디자인학과로 진학하여 즐 겁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때 가 되어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저희 집은 자식 하나 결혼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 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 그 저 인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연이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불 공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도 누누이 말했습니다.

“조건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재 산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 오직 인성이 편찮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런 사람을 데려오면, 무조건 사위로 맞

이하겠다.”

지금의 사위는, 저의 바람에 딱 맞 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흡족한지 모 르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위집이 특실한 가톨릭 집안이였기 때문입니다. 평소 불공할 때, 만나게 될 사돈에 대해서는 이것저 것 원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 니다. 오직 저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발원해왔는데 종교부터가 다르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만난 사돈은 정말이지 저와 생각이 너무나 같았습니다. 보통 종교가 다르면 결혼 준비가 그렇게 고 통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 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성이 선한 사돈은 말 한마디도 참 예쁘게 하습 니다.

“사돈이 불공을 해준 덕에 우리 애들 결혼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며 부처님의 은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5백 만원이

들어야 마땅할 일에 3백 만원 밖에 지 출이 안 나가는 하면, 3백 만원이 들어 야 할 데에는 2백 만원 정도 밖에 필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예 무 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 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 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회사입니 다. 어디를 가게 되든지 많이는 아니더 라도, 조금씩 부처님께 성의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너희 회사는 너희가 하는 거고, 엄 마가 하는 회사는 엄마가 하는 것이니 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간섭 하지 않지만, 차별회사를 행하는 일 그 자체가 무척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줍 니다. 그 덕에 우리 가족 모두가 무사하 게 가족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 합니다.

제가 비록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 지만, 마음만은 항상 부자라고 생각합 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도 “늘 나를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서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닙 니다. 항상 좋은 사람, 좋은 마음을 바라 고 서원합니다. 부처님께 무엇을 해달라 고 바란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오 늘도 저는 그저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 고 화목하길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가 족인 사위도 생겼으니 더욱 더 가족의 행복에 대한 비증이 커졌습니다.

저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 고 살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순조롭게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안에서, 욕심을 버 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 나가면 모든 고난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리라이팅=황보정미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철학박사)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21)

열반과 밀교의 호마

열반은 번뇌와 괴로움이 소멸된 적정(寂靜)의 상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에 있다. 열반은 생사의 괴로움이 없게 된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 현실을 자각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는 교리에 대한 이해(理解)라고 할 수 있다.

열반에 이르는 첫 번째의 길은 번뇌와 괴로움,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다. 부처님께서 번뇌의 근본 원인이 무명(無明)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무명은 지혜가 없다는 것으로,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에서도 무명 속에 살아가는 중생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내지 노·사·우·비·뇌·고(老死憂悲惱苦)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십이연기설에서 익히 알 수 있듯이 무명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무지(無知)를 가리킨다. 무지(無知)에서 어리석음이 있게 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생사 가운데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지로 인하여 번뇌와 괴로움을 겪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생사의 괴로움은 무지(無知)를 타파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지는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가? 무지의 타파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자각, 수행과 실천으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교설을 잘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불교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불교에서 공부와 수

행 실천의 목표는 무명의 타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명의 타파가 곧 열반인 것이다. 그 길은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불교에서는 교리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실천수행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교리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론에 해당하는 교설을 설하실 때마다 상응하는 실천적 교설을 함께 설하셨던 것이다.

번뇌와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無明)과 갈애(渴愛)

부처님께서 번뇌와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뿐만 아니라 갈애(渴愛)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열반에 이르는 두 번째의 길은 갈애(渴愛)를 여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갈애는 애욕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다. 즉 애욕에 대한 집착이다. 이를 애착이라고 한다. 갈애란 어떤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욕심이다. 이를테면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으로 인한 집착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애(渴愛)를 번뇌 가운데 가장 크고 깊으며, 견디기 힘든 욕망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수행에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리에 대한 무지(無知), 무명(無明)은 지혜를 가로막는 장애요, 갈애는 중생의 마음을 불선(不善)과 악(惡)으로 물들게 하고 집착케 하는 번뇌의 덩어리라고 설하셨다. 무명과 갈애가 번뇌와 괴로움의 근본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환언하면, 무지(無知)와 갈애(渴愛)의 타파

는 생사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와 괴로움,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소멸한 상태가 바로 열반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오로지 진리와 일체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가능하다.

그러한 성찰은 곧 연기(緣起)의 이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緣起)로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체 존재의 연기성(緣起性)을 자각하는 것이다. 연기성은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일체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상(無常)의 또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무상(無常)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는 교설에 이어서 ‘괴로움의 소멸이 곧 열반적정(涅槃寂靜)’이라고 설하셨다.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바로 무상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체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교설이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인식할 때 고통과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반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진리와 일체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열반적정을 이룰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열반에 이르는 실천교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편으로 설해져 왔다.

열반에 이르는 밀교의 수행방편

밀교에서도 열반에 이르는 수행방편은 여러 가지로 전

개되어 왔다. 지계(持戒)와 삼밀수행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법(作法)들이 열반에 이르는 방편으로 시설(施設)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작법으로서 호마법(護摩法)을 들 수 있다. 번뇌망상과 일체의 괴로움을 여의는 수행이 열반의 길이라 보았을 때 밀교의 호마는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호마는 산스크리트어로 Homa라고 하며, 소공양(燒供養)의 뜻이다. ‘공양물을 태운다’ ‘태워서 공양한다’는 의미이다. 이 호마는 원래 인도 바라문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무로 불을 지피고 그 불 속에 공양물(供養物)을 던져 소원하는 바를 비는 종교 의례였다. 이 호마가 불교에 수용되면서 진리의 불로 번뇌의 나무를 태운다는 의미로 승화되었다. 즉 해화(慧火)를 가지고 번뇌의 장작을 태운다는 뜻으로 변화한 것이다.

외형적인 의례에서 벗어나 중의(重意)의 수행방편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호마를 행할 때 관념으로써 본존(本尊)과 화로(火爐), 행자(行者)가 삼위일체를 이루고, 행자 자신의 삼밀(三密)이 상응(相應)하여 일체 번뇌를 소멸토록 하고 있다.

이를 내호마(內護摩)라 한다. 직접 불을 피워 나무와 공양물을 태우는 의식은 외호마(外護摩)라 하고, 이러한 의식을 통해 관념으로써 자신의 번뇌망상을 소진(消盡)시키는 것을 내호마(內護摩)라 한다. 『대일경』에서도 ‘능히 업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내호마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열반에 이르는 밀교의 수행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마인 것이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밀교도량과 신변: 생기차제 중 수유가 Anu-yoga(1)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선임연구원

한국불교의 근황을 살펴보면 수록제를 중심으로 영산제, 팔관제 등 불교행사가 자주 열리고, 밀교도량의 개설이 종단과 지자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재난을 마주할 때마다 밀교도량의 개설을 통해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왕실과 백성이 소통과 결집의 기회를 가졌었다. 조선시대 불교가 억압 받을 때도 수록제, 영산제 등의 도량은 여전히 개설되었고 초기 왕실을 주축으로 개설되었던 도량은 점차 민간주도로 확대 되었다. 중국의 경

우 청조에도 수록제 도량은 규모가 커서 운영자금을 국가가 관리한 기록도 있다. 밀교도량의 규모 확대는 밀교도량이 지닌 사회문화적 영향 때문이다. 수록제나 영산제 등의 밀교도량은 붓다와 중생계가 만나 화평한 인간 세상을 기대하고, 망자와 생자가 만나 해원과 내세의 안녕을 축원하며,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만나 불만과 바쁨을 전하는 소통의 장소였다. 밀교도량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은 일제시대에도 여전히 민중의 결집을 두려워 한 일제는 밀교도량을 폐지하였으며 도량을

이끄는 범패승들을 탄압하였다. 한국의 탈춤에서 보이는 것으로 민중이 권력자를 향해 퍼붓는 욕지거리는 과거 밀교도량의 흔적이며 닳뜨 태우기는 도량을 마친 후 바람을 태워 부처께 올리는 호마의식이였다. 이와 동일한 호마의식은 티베트에 여전히 전해진다.

밀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밀교도량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밀교의 위상제고에 기대를 갖게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른 것 같다. 현재 수록제나 영산제를 훌륭히 보존하고 발굴해 온 스님들이 많지만 그것을 밀교도량이라고 명

확히 정의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이들 도량에 보이는 진언과 수인, 밀교의 상징적 복색과 장엄에 대해 『대일경』과 『금강정경』과 초기경계의 밀교의식을 통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부재는 오늘날 대부분의 밀교도량을 영가전도나 지신을 비롯한 토속신을 달래는 무속정도로 간주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밀교도량에 잠재된 밀교의 세계관은 『대일경』에서 보이듯 대일여래가 인간세계의 현실에 신변을 나누는 것이다. 대일여래가 쓴 오불의 보관이나 범패에서 보이는 오불과 오색의 복색은 대일여래로부터 불공성취여래에 이르는 신변의 단계적 과정을 상징화한다. 밀교도량에 소청하는 불보살들은 인간의 현실세계에서 신변을 개시하는 현실의 성중들이다. 때문에 밀교도량을 통해 불보살과 유정이 만나고 생자와 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생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로부터 대승불교 후기에 이르기 까지 정교하게 조직된 밀교의 상징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교에 치우친 불교사의 공부로 밀교도량을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일여래가 보이는 일체지지의 신변은 후기밀교의 생기차제에서 수행체계의 단계로 조직되었다. 생기차제 가운데 수유가(隨瑜伽)와 심심유가(甚深瑜伽)는 각각 수용신과 변화신을 수습하기 위한 수행이다. 52위의 대승보살도 가운데 수유가는 등각(等覺)에, 심심유가는 묘각(妙覺)의 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먼저 수유가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중유(中有), 또는 중음신에 존재하는 락(락, 풍(vayu), 풍맥(風脈))을 인식해야 한다. 중유는 육체가 아닌 의식으로 이루어진 환영이다. 그러나 유정으로서 자아와 생명체로서 인식과 인식경계가 존재한다. 중유는 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체와 같은 물질세계의 인식환경과 다르다. 때문에



인식경계가 보이는 환영을 사실과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관상을 통한 의식만을 조절하지만 나중에는 실제 중유를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이것은 구경차제 가운데 환신차제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Dental Clinic



관성사교도

본치과의원

건강한 치아로 당당한 미소를 찾으세요



임플란트

스케링

미백

충치

풍치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121-1 준빌딩 2층

전화 : 032-546-2875

종립 동해중 소식

동해중학교 탁구장 새로 단장하다



동해중학교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바른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확대와 학교 재학 중 학생 개인별로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상 운동을 습득해서 심

신이 건강한 시민 육성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이번에는 동해중학교 탁구장 시설을 전면 개선하였다.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

업에는 환기장치를 비롯하여 신발장 설치, 자동 탁구대 설치, 샤워장 개선 등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경기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특히 동해중학교는 탁구장 시설 개선 뿐만 아니라 강당 시설의 조명도 일부 개선하여 학생들이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학부모님들께도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얻어 진 성과도 매우 크다.

축구(지도교사 정인호)의 경우에는 동래교육지원청 산하 33개 중학교에서 전체 2위를 달성하여 교육감배에 출전

하기도 하였으며, 농구(지도교사 오경식)의 경우는 동래교육지원청 산하 33개 중학교에서 전체 1위를 하여 동래교육지원청 대표 자격으로 교육감배에 참가하여 부산광역시 전체 중학교 173개 중학교에서 전체 2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모든 교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 덕분으로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성원하고 지원한 결과로 풀이 된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스포츠 뿐만 아니라 예체능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도 교육활동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해중=탁상달교장

News Finder 손 안에 보이는 세상

여야, 은산분리와 상가임대차보호 법 일괄처리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2016년 5월 30일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그동안 '乙을 위한 진짜민생법안'으로 평가받아왔던 법안으로, 대다수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국 232개 전통시장의 5만여 개 점포가 권리금 회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제외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20대 보다 증가 노후 준비로 노동시장 나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 2천 명으로 20대 취업자는 378만 6천 명보다 많았다.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노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60대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4년 2분기(4~6월) 364만 3천 명으로 처음으로 20대 취업자(361만 4천 명)를 넘어섰다. 이후 20대와 앞지러워 치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분기(1~3월)엔 60세 이상 취업자(344만 4천명)가 20대(366만 1천명)보다 21만 7천명 적었지만 2분기 들어 전세가 다시 역전됐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보다 늘어난 데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도 있다.

2분기 60세 이상 인구는 98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 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20대 인구는 642만 1천

명으로 5만 2천 9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60대 이상 인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다 보니 취업자도 60세 이상에선 18만 9천 명 늘어난 데 비해 20대는 8만 9천 300명이 증가해 증가폭이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60대 취업자 증가세가 가파르고 20대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경기 둔화와 빈약한 복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해 젊은이들이 갈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숙박·도소매업 위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을 위한 취업대책은 별다른 게 없는데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수지 기자



부처님 자비와 착한 사마리아인

- 다른 존재 덕분에 내가 성립, 타자 존재 자체 '윤리'로 주장
- 현대인에게 자아 중심이 아닌 타자 중심으로 보는 시선 강조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면부지임에도 도움을 주는 의인의 활약상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우리 사회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여전히 많다. 정작 많은 의인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NGO)까지 의인상을 만들고 있다. 희생의 숭고함을 기리는 동시에 착한 유전자(DNA)가 사회 곳곳에 전파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찰, 해양경찰, 군인, 소방관 등부터 일반인까지 그 대상을 최대한으로 넓힌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LG그룹이다. LG는 2015년부터 꾸준히 'LG의인상'을 준다. 2015년 3명, 2016년 25명, 2017년 30명, 올해 들어 현재 19명까지 총 77명이 LG의인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에 대한 개탄의 소리는 귀에 면역이 될 정도로 요란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도덕성 회복의 목청을 돋우었으나 찢어진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수리하려는 짓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긴 가뭄에 소나기처럼 이 절망감

을 녹여 주는 아름다운 의인(義人)들의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기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촉촉히 적신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기독교 복음서에서 유래했다.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이 부상 당한 채 길 위에 쓰러져 있지만, 유대교 제사장 등은 모른 채하고 지나갔다. 이때 유대인이 천사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의인,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큰 관심은 우리 사회의 비도덕성에 대한 아픔서 나온 것 같다. 2년전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참사 당시, 부상자 4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긴 동해 목호고 A교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어느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이 그를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지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수상과 상금 5천만원을 한사코 거절했다. 가슴 뭉클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A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해 큰 화두와 울림을 던져 준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바르고 행복한 사회'이다. 이같은 사회를 만들

기 위한 기초가 바로 윤리 도덕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첫째는 개인의 도덕성에 기초한 개인 윤리적 차원이고, 둘째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관심을 두는 사회 윤리적 차원이다. 근래 '의인에 대한 처우'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논의들은 바로 사회 그런 차원의 논의들이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사회가 지닌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성을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다.

의인에 대한 처우 문제와 함께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논쟁도 일고 있다. 이 법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할 때 자기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불구하고 구조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이다. 60대 운전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졸도했는데 승객은 신고도 안 해주고 공항으로 떠나 결국 그 운전사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물론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가진 법은 형법을 비롯해 산재해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는 독립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와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개인의 인권을 훼손하고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비판도 높다. 의인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틀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착한 존재이고, 착하면서 이기적인 매우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인과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붓다의 연기론과 자비 정신을 윤리이론으로 정립한 프랑수아 철학자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 윤리'가 생각난다. 그는 다른 존재 덕분에 '나'라는 존재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타자의 존재 자체를 '윤리'라고 주장한다. 그의 타자 개념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현대인에게 자아 중심이 아닌 타자 중심으로 보는 시선을 강조한다. 연기와 자비의 강령로 이 메마른 땅에 생기가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붓다의 길일 것이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8월 21일 ~ 9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Amount. Includes rows for 개천사, 관성사, 기로스승, 동해사, 백월사, 법천사, 법향사.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Amount. Includes rows for 사원명무기명, 서울경인교구, 수인사, 실지사, 운천사, 일원어린이집, 잠원햇살어린이집.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Amount. Includes rows for 정각사, 지인사, 초록어린이집, 총지사, 화음사, 흥국사.



절기 이야기

한로와 중양절

삼일사 주교 남혜정사



한로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으로 양력 10월 8~9일이 입기일(入氣日)이다. 음력 9월의 절기로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이다. 아침저녁으로 추위가 더해져 초목에 기드 이슬이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로 이 한로 즈음 느끼는 추위를 이슬추위라 하고 이슬이 얼어 서리와 섞인 듯한 상태를 이슬서리라고 한다. 또한,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저녁 무렵엔 해가 빠르게 저버리고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가을 해는 두레박이 떨어지듯 빨리 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한로 입기일로 부터 상강 절기까지 15일을 5일씩 3후(候)로 나누었다. 초 후에는 기러기

가 초대를 받은 듯 모여들고, 중 후에는 참새가 즐기고 조개가 나오며, 말 후에는 국화가 노랗게 핀다고 하였다. 들판에는 누렇게 익어 가는 벼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농부들은 추수를 서두른다. 농가에서는 이때가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벼를 베고, 밭곡식을 거두어 타작 하느라 분주한 때다. 한편 이 절기는 풍년을 노래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요즘은 갖 과일들은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고 단맛을 더하며 탐스럽게 익어간다. 밤·배·사과·오미자·머루포도 등 풍성한 각종 과실을 수확 할 때이다. 산과 실로는 머루·다래·으름 등, 신선한 과일도 여기고 깊은 산에 올라가 따기도 했다. 이래저래 농부들의 일손은 바쁘고 바쁘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한로 절기는 중양절(重陽節)과 겹칠 때가 많다. 중양절은 신라 때부터 군신들의 연례 모임이 이날 행해졌으며, 특히 고려 때에는 국가적인 향연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선 세종대왕 때에는 중양절을 명절로 공인하고, 노인과 대신들을 위한 잔치인 기로연을 추석에서 중양절로 옮기는 등, 이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

다. 나라에서는 특별히 과거시험을 실시하여 이날을 기러기도 했다. 중양절은 고려 이래로 설날, 단오, 추석과 더불어 임금이 참석하는 제사를 올렸다. 일반가정에서는 추석 때 햇곡식으로 제사를 올리지 못한 집은 이날 조상에 게 헌신하며 추석 다례를 대행하기도 했다. 한로 절기에는 중양절과 같이 특별한 민속행사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사람들과 어울려 국화술과 국화전을 장만하여 마시며 즐겼다. 또한, 높은 산에 올라가 붉은 수수열매를 따 머리에 꽂고 다니기도 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붉은색이 마귀를 물리칠 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총지중에서는 중양절날(음력 9월 9일, 양력 10월 17일) 객지에서 떠돌다 객사 병사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무주 고혼, 일찍 세상을 떠나 제사를 모시는 않는 영가, 생사의 소식을 알수없거나 기일을 모르는 인연조상영가분들이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살생의 업을 지은 축생 미생의 영가 등을 위해 천도의 재불공을 올리고 있다. 중양절 불공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총지종 사원을 찾아 중양절 불공을 접수하면 된다.

삶의 지도를 가져라 목표가 있는 삶

동인대학교 체육학과 신정택 교수

제1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 본대에서 파견된 수색대가 알프스 산맥에서 조난을 당했다. 추위와 폭설로,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나자 본대는 수색대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꼭 4일째 되던 날 수색대가 본대로 돌아왔다. 사상자 한 명 없는 멀쩡한 상태였다. 놀란 상사들이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본대장이 이렇게 말했다. "저희도 눈 내린 산 속에서 절망적이 됐죠. 그런데 본대원 가운데 한 명이 알프스 산맥 지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걸으면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대장의 설명을 듣고 그 지도를 건네받은 상사들은 다시 한 번 꺾꽂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지도는 알프스

산맥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산맥 지도였다.

위의 이야기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목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즉, 목표가 없는 것보다 잘못된 것이라도 목표가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목표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는 희망(꿈)과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다. 희망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자신의 바램이지만, 목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희망이다. 즉, 자신의

희망(꿈)에다 구체적 계획을 넣으며 바로 목표가 된다.

한편, 목표설정의 효과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목표는 주의와 행동을 과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한다. 둘째, 목표는 동기유발 및 지지(support) 효과가 있다. 즉, 목표는 에너지와 노력을 유발 및 지속시켜,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목표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피드백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목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목표설정 원리에 맞게 잘 설정해야 한다(표 참조).

목표설정의 원리

- | | |
|-------------------------------|-------------------------|
| 1)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5) 목표는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
| 2) 수행목표를 설정하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 6)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함께 설정한다. |
| 3)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7) 목표는 유연성 있게 설정한다. |
| 4) 도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 |

사하라 사막의 심장부 타네즈루프트는 지평선 끝까지 평평하고 드넓은 번쩍이는 모래뿐이었다. 예전에는 그 사막을 건너다,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아무런 특색도 없는 지형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은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내는 지평선이 있는 지역까지 5킬로미터 거리마다 55갤런들이 검정 석유통을 놓아 방향을 표시했다. 그 후 그 사막에서 길을 찾다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

졌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의 석유통을 지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을 횡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개구리를 먹어라, 부라이언 트 레이시지 지음, 북앳북스 출판)

위의 사례처럼, 아무리 이루기 어려운 큰 목표라도 '한걸음씩' 노력해 나아가면 그 목표를 언제가 이룰 수 있게 된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한다. 그 방향

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켈피언은 체육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켈피언은 그들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목표, 꿈, 비전으로 만들어진다. 오늘 빠르게 걷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 지를 들여다보자. 그래야, 자신의 삶의 지도인 목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성공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 ⑫

梅蘭菊竹



덕광(설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蘭 따라 그리기 V

1	2	완성
3	4	

수인사와 함께하는

꽃보다 할매 할배 효잔치

2018. 10. 20. (토) 11:00~14:00

장소 : 향도초등학교 강당(중앙동 동사무소 앞)

불교총지종 수인사



의인(義人)이란 표현은 부끄럽습니다



서울 낙성대역에서 남성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을 도와주다 다쳐 '낙성대 의인'으로 회자된 의인 곽경배씨의 이야기이다.

게임전문지 '데일리게임'의 편집장인 곽씨에게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곽씨는 업무상 저녁 미팅을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을 나섰다.

"도와주세요! 문지마 폭행이에요!" 그런데 그때, 곽씨의 귀에는 한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곽씨가 재빨리 눈을 들었고 한 노숙자가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노숙자는 곽씨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역사를 빠져나갔다.

곽씨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뒤를 쫓았다. "아저씨 왜 사람을 때

려요." 곽씨가 김씨를 불러 세우자 김씨는 "너도 죽고 싶냐"며 왼쪽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순간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내가 비켜서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 것'이란 생각에 곽씨는 물리

설 수 없었다.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곽씨는 오른팔을 다쳐 왼팔과 신경이 손상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곽씨는 "화단에서 몸싸움을 벌일 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곽씨와 주변 고등학생 등 시민 5~6명이 힘을 합쳐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를 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이날 부상으로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오른팔의 신경과 힘줄, 근육 등을 다쳐 봉합수술을 마쳤지만 여전히 손가락 4개가 감각이 없는 상태

다. 곽씨는 "주치의가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를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인대 이식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병원비 부담은 덜게 됐다. 피의자가 노숙자인 데다 가족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의사상자 등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정부에서 치료비를 사후 지원받는 데도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엔씨소프트문화재단 등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그리고, 엘리복지재단에서 '엘지의 인상'을 수여하고, 위로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곽씨는 "여러 군데서 연락을 주셨지만 저보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종사하는 게임업계의 도움만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곽씨가 국가로부터 병원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피해 여성이 도망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비판 댓글이 달리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상대가 흉기를 꺼냈는데 얼마나 놀랐겠냐. 몸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순간 자리를 비웠을 뿐 피해 여성은 이후 경찰에 연락해 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불교총지종 전수 라오스 성지순례

불교총지종 전수 29명은 5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 성지순례길에 올랐다.

전수들은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탁투양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에메랄드사원의 근원지인 왓까개우사원과 10160존의 불상을 모셔놓은 왓사켓사원을 순례하였다.

순례길 중에 한 초등학교에 들러 가져온 학용품과 현지에서 구입한 과자와 음료수, 심시일반으로 모은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실지사, 환갑·칠순 부부 잔치 열려



실지사 주교 범우 정사는 9월 9일 자성일 불공을 마치고 남편인 김용환(덕천)각자 칠순과 부인 이육분(월명심) 보살의 환갑잔치를 실지사 공양처에서 합동으로 잔치를 열었다. 환갑·칠순 생일잔치를 통해 대중들과 함께 즐거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생신 축하 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나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눈물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다라합창단, 영광 불갑사 상사화축제장 다녀오다



부산 만다라합창단은 9월 19일 전국 최대의 상사화 군락지로 유명한 영광 불갑사에서 제18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장에 다녀왔다.

해마다 개최되는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에 오면 붉은색 웅단을 깐 듯한 황홀한 풍경과 먹줄거리 불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재미와 감동은 배가 된다고 이상록 단장을 전했다.

이번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상사화(애) 빠져 아름다운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각종 공연·전시·문화·체험 행사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어울림 소식

"극락 왕생을 기원합니다." 9월 12일, 총지사 이복환 보살, 향년 6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총지스케치

Q&A

묻고 답하기

Q 불성(佛性)이 내 안에 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수행은 허망한 생사의 세계를 일으키고 있는 무명과 분별심을 소멸하여 자신이 본래 생사가 없는 부처(本來成佛)임을 자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가 본래 청정한 비로자나 부처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무명에서 갖가지 분별심을 일으켜 허망한 생사의 세계에 빠져있을 뿐입니다. 많은 불자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러나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중생이다. 수행을 하여

깨달으면 중생에서 부처로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왓장을 거울이 될 수 없듯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다면 중생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해도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래 청정한 비로자나 부처임을 알고 무명과 욕심을 버릴 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명과 욕심에 의해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교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도 실천으로 이어

지지 않으면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없고 성불은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내가 청정 비로자나 부처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하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지혜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바르게 실천할 때에 성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불의 기초인 불성은 '내가 부처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의 불씨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성불의 불씨를 밖으로 끄집어 내보이는 노력을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법일정사

2019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교사 임용경쟁시험 공고

2019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동해중학교)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 과목 및 선발예정 인원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 학교	비고
국어	1	동해중학교	근무예정 학교는 초임 근무지임
정보	1		
합계	2		

2. 응시원서 접수[※우리 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 가능]

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2018. 10. 22.(월). 09:00 ~ 10. 26.(금). 18:00 【5일간】
※ 공·사립 동시지원자는 공립(1지망)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후, 사립(2지망) 응시원서 방문접수도 반드시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시행 안내 참고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2018. 10. 12.(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새소식-고시/공고'의 「2019학년도 부산광역시 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개전형 방법

가. 추진방법(1차 + 2차 시험 일부 교육청 위탁)
1)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19학년도 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차 필기시험 및 2차 시험 중 실기평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에 위탁 전형하며, 제2차 면접시험 등은 본 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라 실시합니다.
-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로서 그 자격증을 제출하여야만 응시가능합니다.
나. 시험일정
-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2018. 10. 12.(금)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동해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21일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

제21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현대의 활용 가능한 불교의 자비심-삼국불교의 역할

제 21회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

일정 : 2018.9.11. - 9.15.

장소 : 일본 고베 입정교성회

주제 : 현대의 활용 가능한 불교의 자비심 - 삼국불교의 역할

공동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중국불교협회 / 일중한국제불교교류회

주관 : 일중한국제불교교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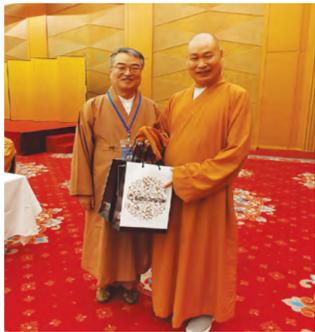
참석인원 : 305명

일본불교 소개

일본 불교는 538년 경 백제의 성왕이 불상과 불경을 전한 이래로 기록되어 있으나 민간에서는 귀화인에 의해 이미 신봉되고 있었다. 남도불교는 도래 승과 견당사 등에 의해 전래되었고 천태종과 진언종은 당에 유학한 사이초(最澄)와 쿠카이(空海)가 전하여 개창되었다.

전래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과 한반도의 영향으로 종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가마쿠라시대(1185-1333) 초기까지 일본 불교는 8종(삼륜, 성실, 구사, 법상, 화연, 율의, 남도육종, 천태종, 진언종)이었으며 이 시대에 정착된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구도의 변천 속에서 호넨의 정토종, 신란의 정토진종, 니치렌(일련)의 일련종 등 일본인 자신에 의한 독자적인 불교가 창시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송에 들어간 예이 사이와 도겐에 의해 임제종과 조동종이 전래졌다.

1936년 종교단체법이 성립되어 국가의 인가제도가 없어지게되자 다수의 종교단체가 분열, 독립됨으로써 많은 종파가 신생되었다. 1995년말 기준으로 157개 종파가 있으며 크게 천태종계열, 진언종 계열, 정토종 계열, 임제종 계열, 일련종 계열, 나라불교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불교 신도이고 약 54.1%가 신도(신사)를 믿는다. 기독교는 0.7% 수준이다. 일본 불교종단은 즉신성불이 가능하다는 밀교와 단계적 성불론의 현교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찰운영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찰별 운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일본불교의 학문적 연구 면에서의 발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큰 사찰마다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다. 종파마다 소의경전을 모신 절은 그 경전 연구가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그 대학 출신이 다시 절에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조강연 - 일본

강연자 : 일중한국제불교교류 협의회 이사장 다케 가쿠초(武覺超)

강연 제목 : 현대에 되살리는 불교의 자비심 - 삼국불교의 역할

강연 요약 : 혼미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심이 아닐런지요. 부처님 자비의 마음을 원동력으로 인간다운 배려심을 되찾고 서로 의지하는 세상을 구축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좋은 것은 남에게 줄 수 있는 나를 잊고 남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자비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도심(道心)이 있는 불자이며 보살이고 군자라하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길이다. 즉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부처님의 마음인 도심(道心)을 지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의식주 등의 생활이 풍요로워지지만 반대로 의식주에만 매몰되면 중요한 도심의 마음을 잃게 된다.

한국불교신문사 주필 원응 스님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는 붓다의 자비 실현을 위하여 란 주제로 강연하며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산하에 가정 '세계불교평화위원회' 같은 소위원회를 두고 보다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세계불교평화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오인스님

인류는 이미 인공지능시대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인류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모라벡 패러독스(Moravec Paradox)는 인류는 인공지능과의 공존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지만 인류는 인간을 말할 수도 있는 로봇의 등장을 우려한다. 때문에 인류의 여생을 위한 로봇윤리

Roboethics가 등장하였다. 발표자는 지금이야말로 강한 인공지능에 대비한 불교적 입장의 표명으로서 불교의 자비를 재해석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실천 방법으로 첫째 인공지능 개발에 종교자 및 정신적 지도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머시

로봇(Mercy Robot) 즉 자비로봇의 개발이다. 불교삼국은 연대를 결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발 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 상징곡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작사 · 작곡 우스이 마코토(臼井 真)

지진에도 지지말자, 강한 마음을 지니고
떠난 이들의 뒀까지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자

지진에도 지지 말자, 강한 연대를 만들어
떠난 이들의 뒀까지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자

상처입은 고베를 예전처럼 되살리자
서로 보듬는 마음과 내일의 희망을 가슴에

상처입은 고베를 예전처럼 되살리자
부드러운 봄 햇살 같은 미래를 꿈꾸며

울려퍼져라 우리의 노래, 새로 태어날 고베의 거리에
보내고 싶어 우리의 노래,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울려퍼져라 우리의 노래, 새로 태어날 고베의 거리에
보내고 싶어 우리의 노래,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고 싶어 우리의 노래,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일본불교의 특징

일본불교는 종조중심의 종파불교이며 많은 종파들로 분포하여 있지만 종조 석가모니는 함께 모시고 있다. 큰 사찰에는 부처님 보다 종조의 상을 크게 모신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많은 종파로 분화되어 75,893개 사찰이 있다. 승려수는 18만이고 종교법인인 168개가 존재한다. 일본 인구의 약 40.5% 정도

서는 대형사찰과 달리 작은 개인 사찰은 세습제가 주류이며 대형사찰은 재정적인 면에서 건실한데 이는 장례문화 영향으로 사후 납골 및 위패 등 관리로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많은 수의 회원들이 가족 위패를 모시고 있어 정기적인 회비와 보시를 한다.

일본불교에서는 중앙 종단의 구속력이 약하며 종교법인 설립이후 구속력이 떨어져 종단에 내는 분담금 등이 잘

